

동지가 금속노조다!

대전충북지부

17호

발행인 : 김정태
발행일 : 2020년 12월 21일(월요일)
발행처 :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

일진다이아몬드 쟁의행위 보복징계! 부당징계 철회하라!

* 12/29(화) 13:30 징계무효촉구 결의대회 (충북지노위 앞)



쟁의행위 보복징계는 부당하다!

일진다이아몬드의 쟁의행위 보복징계에 대한 심판회의가 12월 29일(화) 14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. 일진다이아몬드 자본은 파업 기간 중 있었던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보복징계를 진행했다. 4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회사의 보복징계를 당했다. 파업기간 중 현장순회, 선전물 부착 등이 주된 이유였다. 누가 보아도 명백히 파업에 대한 보복징계다. 지부와 지회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벌여왔다. 이 피켓 시위에는 지부 소속 전체 지회들이 하루하루 번갈아가며 함께 했다.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전체 지회들이 함께 한 것이다.

부당징계 철회하라!

지회는 9월 21일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,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세 달 넘게 이 사건을 조사했다. 노동위원회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사건 징계자들은 모두 구제돼야 한다. 쟁의기간 중에 이뤄진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보복징계하는 것을 얼렁뚱땅 처리한다면 앞으로 노조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. 지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심판회의 당일 13시 30분부터 집회를 연다.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그동안 함께 한 전체 지회들의 뜻을 모아 일진다이아몬드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울 것이다. 1년간의 전면파업은 끝났지만,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